

SINCE 1986

선보가족

사훈 항상 생각하며 최선을 다하자

SUNBO FAMILY



SUNBO Ind Co.,Ltd.

부산광역시 다대동 1517-2 TEL:051-261-3454

Http://www.sunboind.co.kr

2007년 6월 15일 금요일 | 제41호 |

“몸튼튼 마음튼튼”

국제신문 마라톤대회 참가



우리 회사 직원들이 지난달 19일 국제신문 주최로 열린 마라톤대회에 참가했다.

이번 행사는 직원을 포함한 직원 가족 등 총 10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성황리에 치러졌으며, 다음 가을 대회 때는 더욱 좋은 기록을 기대해 본다.

우리 회사는 회사 차원에서 봄, 가을에 한 번씩 해마다 연 2회씩 마라톤을 참가하고 있다.

업무로 인하여 평소 소홀하기 쉬운 직원들의 건강 증진과 대회를 통해 단합심과 애사심을 가지게 하는 계기가 됐다.

뿐만 아니라 대회 자체의 입상과 관계없이 회사 내부서별로 상금도 주어져 각 팀간의 단합과 협동심을 불러일으켰다.

설계부의 한 사원은 “평소에 운동을 잘 안했었는데 오랜만에 운동하는 계기도 되고 경기 내내 힘들 때 서로간의 격려도 아끼지 않았던 것 같다.

부서별로 상금도 주어져 팀워크를 강화할 수 있는 좋은 기회였던 것 같다”고 전했다.

또 한 직원은 “선보의 행사 대부분이 그렇듯이 이번 마라톤 또한 직원과 직원 가족 모두가 함께 참여할 수 있어서 좋았다”고 말했다.



대우조선해양 이영만기술본부장 본사 방문



지난달 23일 대우조선해양 이영만 기술본부장 일행이 본사를 방문했다.

이날 방문에서 이영만 기술본부장은 “선보공업의 주요 장비에 대한 안정적 공급 및 품질의 우수성으로 인해 대우조선해양과의 협력 관계가 매우 좋다”고 말했다.

뿐만 아니라 직접 본사 공장을 둘러 본 뒤에는 “생각했던 것 이상으로 회사의 규모가 크고 작업장이 정리정돈 되어있어 믿고 제품을 맡길 수 있을 것 같다”고 덧붙였다.



최금식 대표이사 복지기금 출연

본사 최금식 대표이사가 지난달 14일 다선 사우회 회비 200만원과 복지기금 100만원 등 총 300만원을 출연했다.

최금식 대표이사의 개인 사비로 출연된 이번 다선 사우회 회비와 복지기금 300만원은 대표이사 모친 장례식 때 선보가족 모두가 한 마음이 되어 보여준 수고와 위로에 대한 감사 차원에서 마련된 것이다.

최금식 대표이사는 기금 전달식에서 “일일이 한 분 한 분 찾아뵙고 인사드리지 못해 우선 죄송스러우며, 바쁘신 가운데 조문하여 주신 선보가족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을 전한다”고 말했다.



리빙TV 및 리얼TV 방영



지난달 15일 리빙TV에 우리 회사가 SPP, 신아, 강남 등의 업체와 함께 소개됐다.

이날 방송은 '뛰어난 기술력으로 바다를 제패하다'라는 제목으로 방영됐다.

최금식 대표이사는 "우리 회사는 인간존중 경영과 고효율 생산시스템구축, 최고의

기술력 확보, 고객의 영업 창출 네 가지를 목표로 한다"고 말하며 우리 회사를 소개했다.

대표이사의 인터뷰를 비롯한 SILENCER와 모놀 유닛 등을 설명했다. 뿐만 아니라 회사 내의 복지시설 소개와 더불어 직원과 직원가족들을 위한 기념 행사 등을 마련해 직원들의 복지증진을 위해 힘쓰고 있다는 내용이 보도됐다.

또 지난 4월 24일에는 리얼TV의 "TV속 세상"에 소개됐다. '대한민국 선박기술 그 발전의 원천'이라는 제목으로 방영됐으며, SILENCER와 모놀 유닛, STRAINER 등 조선기자재들을 설명했다.

장명우 상임이사는 "세계제일의 조선 산

업국이 된 데는 이 분야에 종사하는 모든 분들이 있었기에 가능했다. 앞으로도 LNG 선, 여객선 등 고부가가치선과 해양플랜트 기술의 차별화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기자재산업계의 전문화와 분업화가 세계 경쟁력 확보의 초석이라는 말 또한 덧붙였다.



이번 방송으로 21세기를 이끌어갈 회사로 부산지역에서 우리 회사가 소개되는 것으로 회사로서는 지난 KTV, MBC 등의 방송매체와 경향신문, 부산일보 등의 각종 신문, 잡지에 소개되는 연장선상에 있다고 할 수 있다.



우리 회사 국제신문 경제면에 소개

우리 회사가 지난달 16일 국제신문 경제면에 '기술·情 나누며 상생'이라는 제목의 기사에 (주)세일세레스와 (주)명세CMK와 함께 소개됐다.

"협력업체 직원 아들 돌까지 챙겨"라는 소재목으로 우리 회사의 장점을 표현했다. 평소 협력사와의 관계를 소중하게 생각하고 복지부문에서도 협력업체를 배려한다는 내용 등이 게재됐다. 협력업체를 생각하는 따뜻한 마음이 이러한 기사로 소개되면서 또 한번 협력업체들과의 훈훈한 '정'을 과시했다.



최홍렬상무의 **이한권의책**

미치게 살아라

'미치게 살아라'는 고졸 기능직 사원으로 입사, 20여 년 만에 금호그룹 상무 자리에 오른 윤생진(52)씨가 자신의 성공담을 소개한 책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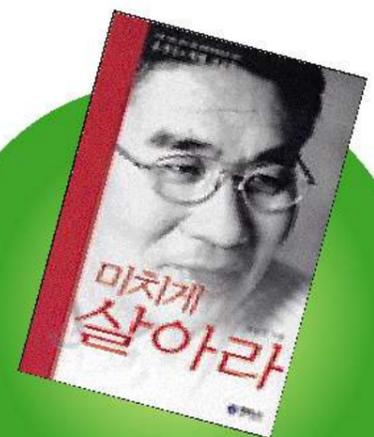
제 꿈은 금호타이어에서 부장이 되는 것입니다.

1978년 기능직 사원으로 갓 입사한 저자는 인사과 면담시간에 자신의 꿈을 주저없이 이야기했다.

기능직으로 관리직이 되는 것은 거의 불가능했던 당시로서는 웃음거리에 불과한 말이었다.

저자는 이후 '최고가 아니면 죽음뿐'이라는 단순한 논리로 공부와 아이디어 창출에 전력을 기울인 결과 회사에 1만8천600건의 아이디어를 제출했고, '금호 제안왕'과 '천국 제안왕'을 받았으며 대통령상 5회의 기록을 세우기도 했다.

입사 후 일곱 번의 특진을 거듭한 저자는 현재 전략경영본부 상무로 재직 중이며 조선대학교 경영대학원에서 겸임교수로 강의를 맡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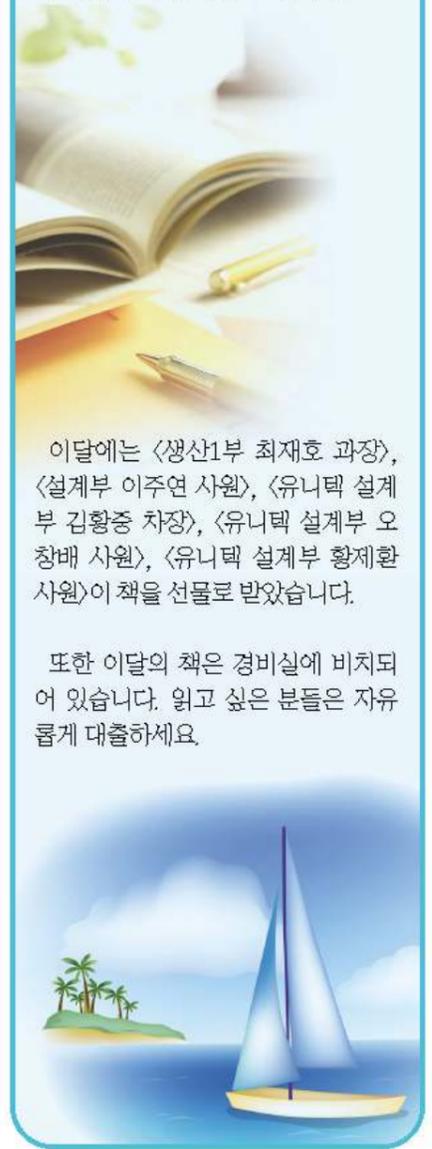


그는 "아무도 할 수 없다면 니야말로 할 수 있다"는 오기와 열정으로 살아 있다고 말한다.



이달의 책 추천

홈페이지 사보 게시판에 글을 남겨 주신 분들 중 5분을 매달 말일 추천하여 이달의 책을 선물로 드립니다.



이달에는 <생산1부 최재호 과장>, <설계부 이주연 사원>, <유니텍 설계부 김황중 차장>, <유니텍 설계부 오창배 사원>, <유니텍 설계부 황제환 사원>이 책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또한 이달의 책은 경비실에 비치되어 있습니다. 읽고 싶은 분들은 자유롭게 대출하세요.

각 조선소 출입시 지켜야할 사항

1. A/S 및 공사를 위해 작업자가 자재를 가지고 출입할 경우

- ① 출입시 신분증과 안전장비(안전모, 안전화, 보안경등)를 필히 지참할 것. 지참하지 않을 시 출입 및 승선이 불가능함
- ② A/S 및 작업에 필요한 장비 및 A/S 자재 입고시 반입증 작성하여 경비에게 검수 받을 것.
- ③ 작업장까지 이동 중이나 작업장 내 흡연금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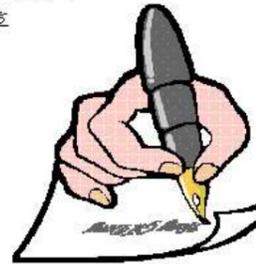


2. 납품차량 출입시 주의점 (2회 이상 적발 시 차량출입금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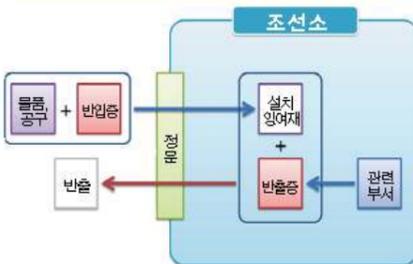
- ① 사내 규정된 속도 및 차선을 준수할 것.
- ② 허용된 주차 공간에 주차할 것.
- ③ 운전 중 휴대전화사용 및 흡연 금지.
- ④ 적재 칸에 작업자 탑승하여 운행금지.
- ⑤ 차량운전자는 안전보호구를 소지하여 출입.
→ 미지참시 물류센터에서 대여한 후 출입.
- ⑥ 각 조선소 별 정기적인 납품차량의 운전자는 교통교육을 필히 이수하여 교육 필승을 교부 받을 것.

3. 자재 납품시 발생하는 사례

- ① 거래명세서상 제품사양과 현물 제품사양이 불일치할 경우
→ 불법자재 납품으로 간주되어 거래명세서 처리 불가
- ② 운송업체(용차) 직원이 납품할 경우
→ 납품절차 미숙으로 거래명세서 처리 불가. 확실한 교육이 필요시 됨.
- ③ 택배 및 직투입 자재의 행정 처리시
→ 거래명세서 처리 불가
- ④ 중공업에서 상기와 같은 불법자재 납품을 근절하고자 협력회사에서 자재상차시 현물과 거래명세서상의 제품사양이 일치함을 상차 책임자가 직접 확인하여 거래명세서 뒷면에 자필서명 후 제출할 것.



④ 작업 완료 후 남은 자재는 필히 담당 생산부에 문의하여 반출증을 작성한 후 정문 혹은 반출문을 통과할 것.



* 조선소 출입시 반입증·반출증은 반드시 작성하여 불이약이 없도록 해야한다.



두 번의 수고보다는 '코리아 SHOT'

주/야, 언제든지 OK!

코리아 SHOT는 SHOT/PAINT를 주로 하는 업체다. 지난 1983년 PLANT 사업을 하다 1998년에 SHOT/PAINT로 업종을 전환

하게 되었는데 업종 전환이 선보와의 인연을 시작하는 계기가 되었다고 한다.

설립 당시 직원 3명으로 시작한 코리아 SHOT은 지금은 18~20명의 직원이 일하고 있으며, 2001년부터 지금까지 7년

째 선보와 인연을 맺고 있는 코리아 SHOT 명수경 대표는 "초기에는 선보와 일을 하면서 마찰도 있었다. 영업물량이 들어오는 시간이 일정하지 않아서 급한 물량을 처리해야 할 때면 야간에도 작업을 해야 했다. 그 부분에서 선보와 마찰이 있었지만 올해 3월부터 물량이 늘어남에 따라 자연스레 주·야간작업을 하다보니 지금은 마찰이 많이 줄었다"고 말했다.

현재 선보가 전체 물량의 80%를 차지하고 있는 코리아 SHOT은 할 수 있는 만큼만 적당하게, 맡은 것에 관해서는 분명하고 확실하게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한다.

명수경 대표는 "믿을만한 품질은 당연하고 납기일 준수 최우선자가 되는 것을 늘 마음 속에 품고 일하고 있다. 이러한 것



들을 잘 지켜온 것이 지금까지 코리아 SHOT을 성장시켜 온 원동력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사소한 일에도 늘 창의정신과 책임정신을 가지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 그럴 것이라는 명수경 대표의 다부진 말처럼 코리아 SHOT의 다부지고 눈부신 성장을 기대해본다.





15호 칭찬 릴레이

생산관리부 김종섭 계장

“나에게 주어진 일은
깔끔하고 우직하게”

선보가족의 15호 칭찬주자로 추천합니다. (추천인: 손성환)

많은 부분에서 배울 점이 많은 김종섭 계장

칭찬 릴레이 14호 주인공으로
선정된 소감을 말씀해주세요.

이 자리를 빌어서 고마운 동료
에게 한마디 해주세요.

이렇게 칭찬 릴레이에 선정될 줄 예상도 못해서 놀랐어요. 저에게 주어진 일만 최선을 다해서 처리하려고 노력했을 뿐 칭찬받을 정도라고 생각하지는 않았거든요. 그래서 얼떨떨하고 감지덕지라고 생각해요. 회사 내에 머무르는 시간이 적다보니 사람들을 만나는 기회도 자연스레 적기 때문에 주변의 반응은 아직 잘 모르겠어요. 설계부 강대천씨가 저를 추천해주셨는데 그냥 설계에 따라 모자란 부분은 보충하면서 뒤처리만 했을 뿐인데 참 쑥스럽네요.

평소 어떤 마음 자세로 근무하세요?

현재 피포조선 내에서 A/S를 비롯해 누락된 자재 등을 챙기는 일을 하고 있어요. 모든 일에는 뒤처리가 중요하다고 보니 사소한 것 하나하나에도 귀 기울이는 편이죠. 물론 고객의 불만사항들도 놓치지 않으려고 노력해요. 제가 처음 이 일을 하면서 '주어진 일에만 최선을 다하자'고 마음먹었기 때문에 이것을 지키려고 끊임없이 노력하는 편이에요. 제가 한 일에 대해서 꼼꼼하게 확인하고 다음번엔 더 잘하려고 하죠. 제일 뿐만 아니라 때로는 주변 사람들의 일에도 관심을 가져요. 서로서로 협력하면 좋잖아요.

일을 하면 할수록 고마운 분들이 더욱 많아지는 것 같아요. 정호경 상무님, 임영삼 부장님을 비롯해 이은석 대리, 조경선 주임, 전철민 팀장, 황성 기사, 신진성 기사, 신인성(명칭), 진인상(명칭) 과 그 외 설계부서 분들에게 많이 고마워요. 이 분들이 있어서 힘들어도 다같이 도와가면서 일할 수 있게 되는 것 같아요.

15호 칭찬 릴레이의
주인공을 추천해 주세요

고마운 분들도, 배워야 할 점이 있는 분들도 많지만 생산 2팀의 한진우 주임을 추천하려고 해요. 피포조선 납품을 담당하고 있는데 피포조선 내에서 일을 할 때면 참 힘든 부분이 많아요. 하지만 일하는 게 힘들어도 주변 사람들을 먼저 생각하고 사기를 북돋워주려 하는 모습에 많은 사람들이 힘을 내게 되는 것 같아요. 뿐만 아니라 납품시기도 핑크 내지 않고 꼬박꼬박 잘 지키기 때문에 일이 일사천리로 잘 진행되는 것 같아요. 납품기간 엄수 등 배워야 할 점이 많은 한진우 주임을 16호 칭찬 릴레이의 주인공으로 추천합니다.

칭찬 릴레이는 서로가 서로를 칭찬하는 아름다운 문화가 선보에 정착되기를 바라며 펼치고 있는 캠페인입니다.

생생 현장의 소리

“이제는 이 곳이
내 홈그라운드”

15년간의 노하우로 / 유문열

1992년 어린이날 전날, 우연한 계기로 선보에 입사 해 15년 동안 그 자리를 깨끗하게 지키는 이가 있었으니 그 주인공은 바로 유문열씨다. 물론 15년의 세월이 평탄치는 않았지만 그 무시할 수 없는 시간들을 이제는 웃으며 털어놓는다.

선보에서 일하게 된 계기가 있다면?

제가 37세였던 해에 우연하게 선보에서 일을 하게 되었는데 그 때는 직원이 6~7명밖에 없을 때였습니다. 그런데 마침 그 다음날이 어린이날 이었어요. 어린이날에 애들 장난감이나 사 주라고 사장님께서 전 직원에게 보너스를 주셨는데 저는 입사한지 하루밖에 안되었는데도 보너스를 챙겨 주시더라고요. 그것을 계기로 하루하루를 보내다 보니 어느덧 15년이라는 시간이 흘렀네요. 그 시간동안 말썽도 많이 피우고 탈도 많았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선보에 있길 참 좋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입사 할 때의 선보와 지금의 선보가 많이 다를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초기에는 선보가 지금만큼 성장하지 못했기 때문에 제가 들어올 때만 해도 월급을 주

면 자재 살 돈이 없고 자재를 사면 월급을 못주는 그런 때였어요. 그래도, 인원도 그만큼 적었기 때문에 가족적인 분위기로 일을 했죠. 일을 하면서도 전문적인 시스템이 갖추어지지 않아서 초창기에는 어렵게 일을 했던 것 같아요. 지금같이 전문적인 시스템이 갖춰진 상태에서는 쉽고 간편하게 처리할 수 있는 데 말이죠. 아무래도 예전의 선보와 지금의 선보가 제일 많이 변화한 게 규모예요. 규모가 커지면서 가족 같은 분위기로 일하는 것이 다소 어려워지고 예전만큼 후한 인정이 많이 줄어든 것 같아요. 사람끼리 살을 부대끼며 일을 하면서 어려운 일은 소주 한잔으로 회포도 풀고 그래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많이 없어져서 아쉬운 부분이 많아요.

15년 동안 많은 일이 있었던 만큼 사소한 일 하나가 이제는 모두 추억이라는 유문열씨. 아직 배워야 할 것이 많은 어린 후배들과 함께 일을 할 때면 다독거리면서 일을 해야 하는 데 그렇지 못한 것에 아쉬움이 많다고 한다. 같은 투박하지만 속마음만은 누구보다 따뜻한 그의 모습을 모두가 일게 되는 날을 기대해본다.



틀린 그림 찾기(5개)



축하합니다!

본사공장

임사기념일

품질보증부
허순 (6/19)
삼성섭 (7/1)

생산2팀
허정민 (6/20)
김용하 (6/27)
정오훈 (7/2)
이광희 (7/2)
허현정 (7/10)

생산3팀
유태영 (6/28)
이경식 (7/3)
최근돌 (7/1)
박영호 (7/10)
이광일 (7/15)
지용천 (7/6)

설계부
이은정 (7/15)
한영문 (7/12)

생일

관리부
한태영 (6/15)

생산3팀
윤종두 (6/18)
허현(6/27)
김동섭 (7/6)
이재현 (7/4)
김병호 (7/13)

생산3팀(순해)
양경석 (6/21)

품질보증부
삼성섭 (6/30)

임원
정호경 (7/15)

설계부
최우호 (7/6)

구평공장

생일

생산관리부
김유미 (7/13)

설계부
김무준 (7/3)

품질보증부
김건우 (7/2)

명성산업
이창복(6/23)
유상준(7/15)
권오용(7/7)

대경산업
권대우(6/30)
문홍수(7/9)

대한ENG
추용한(7/3)
조현민(7/3)
김병철(7/15)

영도공장

임사기념일

생산관리부
이정수 (7/1)

생일
생산관리부
김탁현 (7/10)

목포공장
생일
설계부
임창오 (6/21)
정?? (6/26)

생산부
황창하 (7/11)
김주호 (7/11)
소용운 (7/13)

생산부(GD)
이원철 (7/12)